



## 《三國遺事》王曆篇의 檢討

On the Chronological Table of Samkuk-yusa

---

저자            李基白  
(Authors)      Lee Ki-baik

출처            [역사학보 107](#), 1985.9, 1-13 (13 pages)  
(Source)        [The Korean Historical Review 107](#), 1985.9, 1-13 (13 pages)

발행처         [역사학회](#)  
(Publisher)     THE KOREAN HISTORICAL ASSOCIATION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451167>

APA Style      李基白 (1985). 《三國遺事》王曆篇의 檢討. 역사학보, 107, 1-13.

이용정보       삼성현역사문화관  
(Accessed)     183.106.106.\*\*\*  
2021/12/02 09:53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三國遺事》王曆篇의 檢討

李 基 白

I. 머리말

III. 內容의 檢討

II. 資料와 記載方式

IV. 맺는말

## I. 머 리 말

최근 《三國遺事》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반성해야 할 점들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선 《三國史記》의 가치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遺事》에 집착하는 경향을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韓國古代史의 체계화를 위하여는, 三國 이전에 관한 기록을 제외한다면, 《史記》가 《遺事》보다도 필요한 지식을 더 많이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史記》와 《遺事》는 병행해서 연구되어야 하며, 결코 어느 하나에 집착할 성질의 것이 못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遺事》에 대한 연구가 일방적으로 과열되고 있음은 정상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다음으로는 研究의 方法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檀君神話, 몇개의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 근거해서 어떤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가 못하다. 이에 앞서서 《遺事》 전반에 걸쳐서 자세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보다 實證的인 연구가 바람직스럽게 생각된다.

필자는 이러한 검토의 일환으로서 여기서 王曆篇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王曆篇은 다 아는 바와 같이 《遺事》 전체에서 특이한 성격을 지닌 부분이다. 즉 다른 여덟 편이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대해서, 王曆篇은 年表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 특이한 성격이 때로는 王曆篇을 《遺事》의 한 편이 아닌 附錄과 같이 생각하는 경향을 낳게 하였다. 《遺事》의 현존 刊本の 卷·篇의 표시에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이러한 견해를 더욱 부채질 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해서, 《史記》와는 상이한 王室 관계 기사들이 주목되기는 하였으나, 어딘가 하면 王曆篇은 《遺事》 연구에 있어서도 소외된 편이 아니었나 싶다.

그러나 王曆篇을 《遺事》의 부록과 같이 생각하는 견해에는 찬성할 수가 없다. 위의 견해에 따르면 《遺事》의 전체 9편 중에서 제 1편은 권 1의 紀異이고, 제 2편은 권 2의 紀異가 된다.<sup>1)</sup> 이러한 견해는 卷이 양을 기준으로 한 구분이고, 篇이 내용을 기준으로 한 구분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오는 잘못이다. 양이 많으면 한 편이 두 권으로 갈라질 수도 있고, 양이 적으면 여러 편이 한 권을 이룰 수도 있는 일이다. 紀異가 양이 많아서 두 권으로 갈라져 있다고 해서 두 편이 될 수는 없다. 비록 두 권으로 갈라져 있더라도 紀異가 한 편이라고 한다면, 결국 王曆篇을 독립된 편으로 봐야만 《遺事》의 9편이 비로소 갖추어진다는 이야기가 된다.<sup>2)</sup> 그러므로 《遺事》의 정당한 한 편으로서의 王曆篇에 대한 검토는 《遺事》 전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불가결의 작업이라고 하겠다. 이같은 이상과 같은 생각에서 王曆篇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해 보기 위하여 집필 된 것이다.

1) 三品彰英《三國遺事考證》上(塙書店, 1975) p.35.

2) 이 점은 이미 오래 전에 崔南善에 의해 밝혀진 사실이다〔《啓明》18, 1927, pp.3~4 및 《新訂三國遺事》, 民衆書館, pp.2~4〕 그런데도 문제가 되풀이해 서 제기되는 것은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든다.

## II. 資料와 記載方式

王曆篇을 저술하는데 一然이 사용한 자료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하여는 이미 崔南善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崔致遠의 《帝王年代曆》을 節約하여 만들고, 王曆이란 편명도 그 책 이름을 간단히 하여 사용했을 것이라 한다.<sup>3)</sup> 《帝王年代曆》은 분명히 年表일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러한 추측은 무시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적으로 《帝王年代曆》에만 의지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는 찬성하기가 힘들다. 왜냐 하면 《帝王年代曆》은 新羅의 王名을 居西干 등의 고유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모두 某王이라고 고쳐놓았다고 하는데, 이 王曆篇에서는 居西干 등의 고유한 王號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帝王年代曆》에 의존하였더라도 거기에 王으로 되어 있는 것을 一然이 居西干 등으로 다시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더구나 표제로 내세운 王名은 「南解次次雄」이라 하면서도, 설명하기 위한 서술에서는 「南解王」(第四脫解尼叱今 조)이라고 하는 것 같음이 관례로 되어 있으므로,<sup>4)</sup> 더욱 그렇게 생각된다. 그러나 《史記》에는 「奈勿尼師今」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기 王曆篇에서는 「奈勿麻立干」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一然是 《帝王年代曆》은 물론 《史記》와도 다른 어떤 자료를 참고로 했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다른 어떤 자료가 王曆篇을 만드는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고 봐야 하는게 아닐까. 더구나 《帝王年代曆》의 帝를 中國의 君主, 王을 韓國의 君主로 보는 견지에서 《帝王年代曆》이 한국뿐 아니라 중국의 기록도 포함한 것이라고 한다면,<sup>5)</sup> 한국 것만을 기재한 王曆篇을 만드는데 있

3) 崔南善, <解題> (《啓明》 18, 1927, p. 18 및 《新訂 三國遺事》, 民衆書館, p. 23). 이 崔南善의 견해는 뒤에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그대로 답습되어 왔다.

4) 「弩禮尼叱今」을 「弩禮王」(第七逸聖尼叱今 조)으로, 「奈勿麻立干」을 「奈勿王」(第十九訥祇麻立干 조)으로 쓴 것도 같은 예이다.

5) 「우리 歷史를 어떻게 볼 것인가」(三星文化文庫, 1976) p. 29 高柄翊 발언 및 趙仁成<崔致遠의 歷史叙述>《歷史學報》 94·95합집, (1982) p. 52.

어서 一然의 독자적 입장이 나타났을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王曆篇을 만드는데 있어서 《帝王年代曆》을 참고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王曆篇 法興王 조에서는 律令을 始行한 사실이 적혀 있는데, 이는 崔致遠이 鳳巖寺 智證大師碑에서 新羅에 佛敎가 전한 연대를 「우리 法興王이 律令을 제정한지 8년만이다」라고 기록한 바와 같이,<sup>6)</sup> 律令 반포를 극히 중히 여겼던 사실과 일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王曆篇에는 崔致遠의 영향, 따라서 《帝王年代曆》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sup>7)</sup>

그러나 한편 《帝王年代曆》에는 기입되어 있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기사가 王曆篇에 있다. 가령, 뒤에 다시 언급하게 되겠지만, 王曆篇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國王의 父·母·妃에 관한 기사가 《帝王年代曆》에는 포함되어 있지가 않았을 것 같은 것 따위이다. 또 王建이 즉위하여 여러 寺刹을 세웠다는 기록 같은 것도 《帝王年代曆》에는 있었을 것 같지가 않다. 이러한 점들과 함께, 위에서 지적한 王名의 경우와를 아울러 생각해 보면, 비록 일부를 참조했다 하더라도 王曆篇이 전적으로 《帝王年代曆》에 의존하였다고는 생각되지가 않는다.

지금껏 우리는 一然이 《帝王年代曆》과 같은 어떤 하나의 年表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부록과 같이 王曆篇을 작성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너무 집착해온게 아닌가 한다. 《帝王年代曆》 같은 年表類 뿐만이 아니라 여러 자료를 참고해서 一然 자신이 王曆篇을 새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 王曆篇의 내용이, 뒤에서 언급하게 될 것과 같이, 紀異篇과 서로 보완해서 《遺事》의 특징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一然의 독자적인 자료 수집의 결과라고 생각되지만 王曆篇의 史料的 가치는 대단히 높다. 우리는 지금 이 王曆篇이 무슨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6) 《朝鮮金石總覽》上 (1919) p. 89.

7) 李基東의 敎示에 따른다.

된 것인지를 모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史記》가 의거한 것과는 다른 자료에 의거했다는 점이다.<sup>8)</sup> 그러므로 내용에 있어서 서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줄 때가 있다. 가령 新羅의 第7代 逸聖尼叱今의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아진다.

## 逸聖尼叱今의 父·母·妃

關係	典籍	《遺事》	《史記》
父		弩禮王의 兄 또는 祇磨王	儒理王 혹은 日知葛文王
母		伊刊生夫人 혹은 △王夫人 朴氏	
妃		△ 禮夫人(日知葛文王의 女) 혹은 △ 禮夫人(△磨王의 女)	朴氏(支所禮王의 女)

이러한 기록의 상이는 우리에게 상당한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 異傳이, 眞僞를 막론하고 무언가 역사적 사실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면, 이는 괴로운 비명이기보다도 즐거운 비명이 되는데 아니겠는가고 생각한다. 어쨌든 이 王曆篇이 王位의 계승관계에 있어서나 그 母系·妻系 관계에 있어서나, 《史記》와는 다른 새로운 지식을 보태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귀중한 자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王曆篇의 記載方式을 보면, 表의 맨 상단에 中國年代가 적혀 있다. 즉 중국의 國名과 王名, 그 王代의 年號名, 그 연호가 시작된 干支名, 그리고 그 연호가 지속된 年數가 적혀 있다. 이렇게 중국의 年代가 상단에 적혀 있기 때문에 혹은 이것이 帝王의 帝를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西紀로 絕對年代를

8) 이것은 어쩌면 王曆篇이 《帝王年代曆》에 의거한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史記》의 撰者도 《帝王年代曆》을 알고 있었으므로, 어느편이 이에 따랐는지를 판정하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王曆篇과 《帝王年代曆》과의 관계를 쉽게 단정해서 말할 수가 없다.

표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다. 거기에는 年代 이외의 어떠한 역사적 사실도 적혀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이 점을 알 수가 있다.

王曆篇의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은 처음 4단으로 구분하여 新羅·高麗(高句麗)·百濟·駕洛國(伽倻)을 각기 배당하였다.<sup>9)</sup> 이것은 건국의 연대가 빠른 것에서부터 뒤지는 것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배정한 것이다. 統一新羅時代가 되면 1단으로 되었으며, 여기에는 渤海를 위한 단을 만들지 않고 있다.<sup>10)</sup> 後三國時代가 되면 다시 3단으로 구분하여 後高麗(弓裔)와 後百濟(甄萱)를 新羅와 함께 각기 한 단에 배정하였다. 이와 같이 王曆은 크게는 국가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한 단을 이루는 한 국가의 기사는 國王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따라서 王曆篇의 記載方式은 한마디로 王朝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다.

하기야 현대의 年表라 하더라도 그것이 王朝를 기준으로 난이 짜여져 있음은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 사실만을 가지고 王曆篇의 성격을 논한다는 것은 조급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그 記載內容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 Ⅲ. 內容의 檢討

王曆篇은 단순한 曆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적어놓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年表의 상식으로는 이것은 특기할 성질의 것

- 9) 紀異篇이 古朝鮮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대해서, 이 王曆篇은 三國 이전의 국가들은 모두 제외하였다. 아마 年表로 작성하기가 어려운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측되지만, 한편 그 이전의 年表類들이 모두 그러했던 때문도 있었음직하다.
- 10) 渤海에 대하여는 紀異篇의 靺鞨·渤海 조에서 간단하나마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 王曆에서는 빠져 있다. 만일 崔致遠의 《帝王年代曆》에서 渤海를 다루지 않았다고 한다면 [趙仁成, <崔致遠의 歷史敘述>, 《歷史學報》 94·95합집, 1982, pp.50~51], 《三國史記》의 年表와 아울러, 이 王曆篇의 작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다.



이 아니다. 그러나 《史記》의 年表와 비교해 볼 때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史記》의 年表는 단순히 國王의 즉위와 在位年代를 알려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年表인만큼 독자적인 年號를 사용했을 경우에 이를 적어두었으며, 또 眞德王 4년에 “中國의 正朔을 始行했다”고 한 뒤에는, 中國의 年號가 바뀌었으나 아직 新羅에서 새 연호를 모르고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를 밝혀두고 있다. 그 밖에 특히 기록한 것은 新羅의 赫居世居西干 즉위년에 “이로부터 眞德까지는 聖骨이다”라고 한 것과 太宗王의 즉위년에 “이로부터 이하는 眞骨이다”라고 한 것과, 그리고 특이하게 泰封(弓裔) 14년에 “太祖가 百船將軍이 되었다”고 한 것뿐이다. 그러므로 《史記》의 年表는 거의 전적으로 단순한 연대의 일람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해 볼때에 《遺事》의 王曆篇이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들은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서 마땅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遺事》의 王曆篇에 기입된 역사적 사실이란 극히 제한된 적은 분량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상식화된 현대의 年表와는 크게 다르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적은 분량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된 사실들은 더 의미를 지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王曆篇에 기재된 사항을 보면, 우선 한 行을 메우는 大字로 적은 것들이 주목된다. 그러한 것으로는, 첫째로 各段을 표시하는 新羅·高麗·百濟·駕洛國·後高麗·後百濟 등의 國名이 있다. 다음으로서는 각 나라의 王名이 있는데, 이것은 「第一赫居世」·「第二南解次次雄」하는 식으로 代數가 반드시 적혀 있다. 그 다음으로서는 建元·開國·大昌·鴻濟·大和라는 新羅의 年號가 있다.<sup>11)</sup> 高句麗와 百濟에도 年號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도 적혀 있지 않는 것은 《史記》의 年表와 같다. 그리고 나라가 망했을 때의 「國除」라는 기록과, 이에 대등한 高麗의 後三國 統一을 표시한 「統三」이라는 기록이 있다.<sup>12)</sup> 이같이 大字로 적힌 사항들은 모두 王朝 중심

11) 이 밖에는 後高麗의 弓裔가 「虎(武)泰라는 연호를 설치했다」고 하였으나, 이 틀 역사적인 기사로 적었을 뿐 年號로써 大字로 적어넣지는 않았다.

12) 新羅의 第一赫居世 조에는 「築金城」이 大字로 적혀 있으나, 이것은 분명히

으로 엮어진 年表에서는 골격이 되는 사실들이며, 여기에 이 王曆篇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고 하겠다.

大字로 적힌 사항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王名이라 하겠는데, 王들에 대하여는 많은 부가적인 설명이 첨가되어 있다. 우선 王名에 다른 所傳이 있을 경우에 이를 기록하였다. 가령 新羅의 第十三末鄒尼叱今에 대하여 「一作味炤 又未祖 又未召」라고 하는 따위이다. 諡號가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名을 적었는데, 高句麗의 第十九廣開王에 대하여 「名談德」이라고 한 것과 같다.

그리고는 그 王의 父·母·妃를 적고 있다. 母와 妃의 경우에는 그 이름을 물론 적었지만 또한 母·妃의 父의 이름과 姓도 기입하였다. 이 王母·王妃에 관한 기록은 新羅에 있어서는 꼭 충실한 편이나 高句麗나 百濟의 경우에는 극히 소홀하다. 그러나 이것은 一然의 잘못이 아니고 기록의 부족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어 王이 즉위한 해(干支)와 治世의 年數를 적고 있다. 그리고 때로는 王陵의 위치를 적어넣기도 하였다. 예컨대 奈勿麻立干에 대하여 「陵은 占星臺 西南에 있다」고 하고, 文武王에 대하여 「陵은 恩感寺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고 한 따위이다. 이같이 역대의 國王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기록들이 이 王曆篇 내용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로써 이 王曆篇의 특징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王과 직접 관련되는 것 이외에는, 國家와 직접 관계가 되는 國號와 國都에 관한 기록이 적혀 있다. 가령 國號에 관한 것으로는 新羅의 第一 赫居世 조에,

國號를 徐羅伐, 또는 徐伐, 혹은 斯△, 혹은 鷄林이라고 하였다. 一說에는 脫解王 때에 이르러 처음으로 鷄林이란 號를 설치하였다고 한다.

고 한 것과, 第十五基臨尼叱今 丁卯 조에,

잘못된 것이다. 아마 글자 수가 적기 때문에 板刻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國號를 정하여 新羅라고 하였다. 新은 德業이 날로 새롭다는 것이요, 羅는 四方의 民을 網羅하는 것이라고 한다. 혹은 智證·法興 때의 일이라 한다.

고 한 것과, 그리고 百濟 第二十六聖王 戊午 조에 “南扶餘라 일컬었다,” 後高麗 弓裔 辛酉조에 “高麗라 칭했다,” 甲子 조에 “國號를 摩震이라 고쳤다”고 한 것이 있다.

國都에 관한 기록으로는, 高句麗의 第二瑠璃王 癸亥 조에

都邑을 國內城으로 옮겼는데, 또한 不而城이라고도 한다.

고 한 것이라든가, 百濟의 第二十六聖王 戊午 조에,

都邑을 泗沘로 옮기고 南扶餘라 일컬었다.

고 한 것 등이 그 예인데, 이밖에 10개의 國都관계 기록이 더 있다.

다음으로는 年號와 時代區分에 관한 기록이 있다. 年號에 대해서는 이것이 특히 大字로 기록되었음을 이미 위에서 언급하였다. 時代區分은 新羅에 한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즉 第二十二智證麻立干 조에,

已上은 上古라 하고, 已下는 中古라 한다.

고 하였고, 第二十八眞德女王 조에,

已上은 中古인데 聖骨이요, 已下는 下古인데 眞骨이다.

라고 하였다. 이 上古·中古·下古의 구분이 《史記》가 眞德女王과 惠恭王을 경계로 해서 上代·中代·下代로 나누은 것과 다르기 때문에 주목을 받아온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sup>13)</sup>

이 밖에 國內에 관한 기사로는 築城·築堤·律令·佛敎에 관한 것들이 있다. 築城에 대하여는 高句麗 第十六國原王 甲午 조에 “平壤城을 增築하였다”고 한 것, 新羅 第一赫居世 甲申 조에 “金城을 쌓았다”고 한 것, 그

13) 末松保和 <新羅三代考> 《史學雜誌》 57의 5·6합병호(1949) 및 《新羅史의 諸問題》, (東洋文庫, 1954) 참조.

리고 第十四儒禮尼叱今 조에 “月城을 補築하였다”고 한 것 등이다.<sup>14)</sup> 이 築城은 실상 國都에 관한 기사와 마찬가지로 다루어도 좋을 것 같다. 다음 築堤에 대한 기사는 거의 예외적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新羅 第十六乞解尼叱今 己丑 조에 碧骨堤에 관해서,

처음으로 碧骨堤를 쌓았는데, 둘레가 △만 7천 2십 6步요, …… 백 6십 6步요, 水……日 1만 4천 7십이었다.

고 적혀 있다.

律令에 관한 기사는 高句麗나 百濟에는 보이지를 않고, 新羅의 第二十三法興王 조에 「처음으로 律令을 행하였다」고 한 것이 유일한 예이다. 佛敎 관계 기사도 다른 경우와 같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王曆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역시 주목된다. 新羅 第二十三法興王 조에 “처음으로 十齋日에 殺生을 금하게 하고, 僧尼가 되게 하였다”고 한 것과 高麗 太祖 조에 十大寺를 위시한 많은 寺刹을 창건한 기사가 실려 있다. 끝으로 중요한 對外關係 기사가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이王 때에 濛汗只國(지금 安康) 및 押梁國(지금 山)을 滅했다. (第六祇磨尼叱今)

또 倭國과 서로 ……嶺……立峴은 지금의 彌勒大院 동쪽 嶺이 그것이다. (第八阿達羅尼叱今)

처음으로 高麗와 通聘하였다. (第十理現解尼叱今)

百濟兵이 처음으로 來侵하였다. (第十六乞解尼叱今)

처음으로 吳國과 通하였다. (第二十慈惠悲立干)

倭國兵이 來侵하였다. 처음으로 明活城을 쌓고 들어가 피하니, 梁州의 두 城을 와서 포위하였는데,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同上 己未)

이들 對外關係 기록은 모두 新羅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新羅가 주변의 작은 城邑國家, 高句麗와 百濟 및 倭와 中國과의 처음 교섭을 그들 국가

14) 이 밖에 倭兵이 침입해 왔을 때에 明活城을 쌓고 피난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新羅 第二十慈惠悲立干 조), 이것은 오히려 對外關係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게 생각된다.

와의 교섭의 특징을 살려서 적어 놓은 듯한 인상을 받는다.<sup>15)</sup> 즉 城邑國家에 대하여는 攻滅을, 高句麗와 中國과는 通交를, 그리고 百濟와 倭는 그來侵을 적는 식이다.<sup>16)</sup>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王曆篇에 실려 있는 역사적 사실들은 어떤 성격의 것인가.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國家 중심, 특히 國王 중심의 기사라고 할 수가 있다. 王의 이름, 王의 父·母·妃에 관한 기사, 즉위한 연도와 治世의 햇수, 陵의 위치 등 國王과 직접 관계되는 기사가 王曆篇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國號나 國都 및 築城, 그리고 年號, 時代區分 등은 國家와 직접 관계되며, 결국은 國王과도 연결되는 사항이다. 律令과 對外關係도 이에 준한다고 하겠다. 佛敎도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다를 수가 있다. 다만 단 한 건의 築堤 기사만은 그 까닭을 잘 알지 못하겠는데, 이 하나의 예외가 王曆篇의 성격을 생각하는데 크게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결국 王曆篇은 강한 王朝史觀에 입각해서 편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역시 國家 중심, 國王 중심으로 우리나라 古代史의 體系化를 시도한 紀異篇과 그 軌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다만 紀異篇은 神異事를 중심으로 편찬했으므로, 현실적인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편찬한 王曆篇과 서로 다르며, 결국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고 할 수가 있다. 王曆篇이 《遺事》의 단순한 부록인 것으로 치부될 수가 없는 것을 이러한 점에서도 느낄 수가 있게 된다.

#### IV. 맺 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잘못이 없다면 우리는 대략 다음과 같은 사실을

15) 倭國兵의 침입 기사가 두번 나올뿐, 다른 나라와의 관계는 모두 그 첫번의 경우만을 한번씩 적고 있다.

16) 이러한 점에서도 一然이 단순히 어느 자료를 베껴놓았다기 보다는 독자적인 입장에서 기사를 취사선택했을 것이라는 인상을 짙게 받는다.

알게 되었다고 믿는다. 우선 王曆篇은 단순한 《遺事》의 부록이 아니라 一然이 의도적으로 하나의 篇으로 편찬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曆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들을 적어넣은 것이었다. 구체적 사실들은 어느 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이기 보다는 一然이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실들을 취사선택한 것이라고 봄이 오히려 타당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은 王朝史觀에 입각한 것이어서 國家 중심, 國王 중심의 사실들이 기록되게 되었다. 다만 같은 王朝史觀에 입각한 것이더라도, 神異事를 주로 적은 紀異篇과는 달리 현실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주로 적어 넣었다. 그 결과 紀異篇과 王曆篇은 서로 보완 관계를 가진다고 보았다. 대략 이상과 같은 것이 본고의 요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王曆篇을 史料로서는 상당히 귀중하게 다루어 왔다. 그러나 이것을 편찬물로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고 대해오지 않았다. 필자는 여기서 王曆篇을 하나의 편찬물로서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그런 뜻에서 조그마한 의미가 있었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필자가 잘못 본 점들에 대하여는 叱正을 얻어 이를 시정할 기회를 갖고자 한다.